

기계가 숲을 가꾼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기계화 마인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제일의 아름다운 숲인 전남 장성군에서 독립가·임업후계자, 목재생산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국내외에서 개발된 각종 임업용 기계에 대한 실연회를 개최하였다.

- 산림청에서는 2001. 6. 11~6. 13(3일간) 전남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에 있는 우리나라 제일의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되고 「숲의 명예전당」에 오른 고(故) 임종국독립가 조림지에서 산림청장을 비롯한 독립가·임업후계자, 목재생산업자 및 韓日 양국의 임업기계화협회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업기계화 실연회」를 개최하였다.
- IMF 이후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숲가꾸기사업에서 나는오는 산물을 수집, 활용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인력에 의존한 작업으로는 한계가 있고, 벌채로 인한 林地훼손을 최소화하며, 지난 10년간 목재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노임이 5배나 증가한 현실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업기계화 추진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 목재가격(㎡)당 : ('90)84 → ('95)92 → ('99)110천원

◦ 현실임금(1인1일) : ('90)12 → ('95)52 → ('99)60천원

- 실연회에서는 육림, 벌채, 집재, 운반 등 우

리나라에서 개발한 기계와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기계장비 등 200여종을 전시하고 40여종의 기계를 매일 3회에 걸쳐 실연해 주므로써 참석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 이날 행사는 그동안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선진 임업국에서 도입한 기계를 한곳에 모아 실연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기계의 성능과 효과를 비교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계화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임업선진국인 독일, 일본에서는 이미 산림작업에 고성능 임업기계를 도입하여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는 한편 인력에 의한 작업보다 평균 5배 정도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생산비용을절감하고 있다.
- 산림청에서는 임업기계의 보급확대를 위해 기계 구입시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영세울 적용 품목을 확대(6종→15종)하였으며, 아울러 기계장비를 싼값에 빌려주는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전북진안임업훈련원에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임업연구원을 주축으로 산·학·관이 연계하여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임업기계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최근 대면적 벌채로 인한 산림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건의가 있어
2001. 6. 12일 장성군청에서 전국 목재생

산업자들이 모여 「사유림 임목 벌채 제도개
선」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실연기계 : 총 40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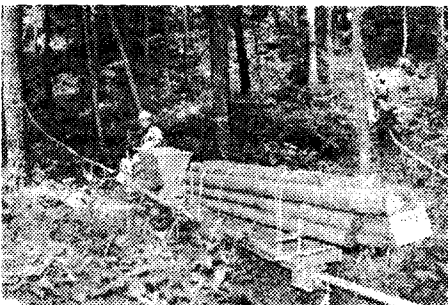
구 분	대 수	장 비 명
육 립	3	자동지타기(2), 등목기
집 재	25	아키야원치, 농용차탑재원치, 세렉스원치, 안마임내차, 치쿠스이임내차, 수라, 오이카와임내차, 허스크바나임내차, HAM-200, 콜라-300, 다목적집재작업차, 라디케리, 파미집재기, 모노레일, 미니포워더(2), 프로세스, 타워야더, 굴착기집재기, 옴니로다, 굴착기형타워집재기·원목집재기, 옴니로다, 그레플바켓, 굴착기우드그랩·로프원치
운 반	2	3.5톤사륜구동트럭(광림), 임내차(한성)
가공이용	10	톱밥제조기(2), 목재파쇄기(3), 톱밥+목재경용(5)



- 기계명 : 허스크바나 임내차
- 용도 : 원경사지에서 벌채된 원목을 임도까지 이동
- 성능 : 10~15m²/2인1조
- 제작회사 : 스웨덴 허스크바나



- 기계명 : 라디케리 집재기
- 용도 : 벌채된 원목을 원격조장으로 임도까지 이동
- 성능 : 12~15m²/2인1조
- 제작회사 : 일본 이와후지



- 기계명 : 모노레일
- 용도 : 급경사지, 계곡 등의 벌채된 원목의 운반
- 성능 : 3m²/회
- 제작회사 : 대림 모노레일